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25.10.24.(금) 10: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운영부	책임자	부장	박혜원	032-290-2030
		담당자	학예사	이정연	032-290-2026

책은 언제부터 지금의 모습이었을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책의 혁명가’ 알도 마누치오展 개최

- 기획전 《천천히 서둘러라 :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10.28~'26.1.25
- 페트라르카, 단테, 보카치오, 에라스무스, 피에트로 벰보 등 르네상스 희귀본 대거 전시
- 국내 최초 마누치오 출판 가문 3대 출판 유산 집중 조명
- 국내 출판사와 협업한 북큐레이션 공간과 ‘미니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코너
- 10월 26일, 이탈리아 국립도서관장의 특별강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10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기획특별전 《천천히 서둘러라 :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을 개최한다.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2024~25)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Aldo Manuzio, 1449/1452~1515)’를 집중 조명한다.

『지리학』 『폴리필로의 꿈』 등 희귀본 및 세계 유일본 『라틴어 문법』 공개
특히 이탈리아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및 베네치아 국립마르차나도서관과 협력해, 『지리학』(1482), 『라틴어 문법』(1493), 『폴리필로의 꿈』(1499),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가장 경건한 편지』(1500), 『베르길리우스 전집』(1501), 『지옥도(신곡)』(1515), 『데카메론』(1522) 등 르네상스 출판 문화의 정수와 더불어, 서체와 편집 디자인을 통해 독서 문화의 혁신을 보여주는 세계 희귀본들이 공개된다.

또한 민음사, 시공사, 동아시아, 태학사, 월라 등 국내 23개 출판사가 참여해 구성한 북큐레이션 공간과, 오디오북·전자책 등 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장도 마련했다.

‘출판계의 미켈란젤로’, 알도 마누치오

알도 마누치오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출판인이자 인문주의자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명했다면 그는 책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베네치아에 **알디네(Aldine)** 인쇄소를 세우고, 고전 문헌과 당대 저작을 완성도 높은 출판으로 선보이며 근대 출판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휴대 가능한 작은 크기의 옥타보 판형을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기울어진 글자체인 **이탤릭체(Italic)** 활자를 인쇄해 유행시켰으며, **세미콜론(;), 어퍼스트로피(^), 쪽번호** 등을 도입해 출판 형식을 혁신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세계 최초의 이탤릭체 인쇄본과 쪽번호가 도입된 서적, 그의 생애 마지막 출판물, 그리고 유럽 각지로 확산된 영향력을 보여주는 **위조판** 등이 함께 공개된다.

마누치오 출판 명문가의 영향력과 유산

이번 전시는 마누치오 가문 3대에 걸친 출판 활동과 그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알도 마누치오는 로마 남쪽의 바시아노(Bassiano) 출신으로, 베네치아에서 알디네 인쇄소를 설립해 출판인으로 활동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과 손자가 인쇄소를 이어받아, 교황의 명으로 로마시와 바티칸 인쇄소에서도 활동하며 가문의 출판 전통을 이어갔다.

전시는 마누치오 가문의 출판 여정을 따라, 로마에서 베네치아를 거쳐 다시 로마로 이어지는 **순환형 동선**으로 구성되었다. 이탈리아가 새롭게 포함된 『지리학』에서 시작해, 약 300년간 가톨릭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경과 1568년 로마 풍경을 담은 판화 등을 통해 출판 가문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꼽히는 『폴리펠로의 꿈』과, 지옥을 세밀히 묘사해 초판본과 차이를 보이는 단테의 『신곡』 개정판 등 로마를 대표하는 희귀본도 함께 전시된다.

온 가족이 즐기는 다양한 체험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했다. 대표 체험으로는 ‘책갈피 만들기’와 ‘미니북 만들기’가 있다. 관람객은 이탤릭체 문자 스탬프를 찍어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고, 종이접기로 미니북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또한 국내 23개 출판사와 협업해 500여 권의 도서를 소개하는 북큐레이션 공간을 마

련하고, '한 줄 감상평 릴레이' 프로그램과 전자책·오디오북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체험도 함께 운영한다.

10월 26일에는 이탈리아 국립도서관장들의 전시 특별강연

전시 개막에 앞서 10월 26일(일) 오후 2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강당에서 특별 강연 <시간을 건너온 책들: 이탈리아 국립도서관장의 '책 이야기'>가 열린다. 이번 전시의 협력 기관이자 이탈리아 출판 문화의 핵심 기관인 로마 국립중앙도서관장과 베네치아 국립마르차나도서관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두 관장은 르네상스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의 출판철학과 문화유산이 오늘날의 출판과 독서 문화에 던지는 의미를 탐구하며, 고전의 가치와 현대 책의 변화를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강연은 한 - 이탈리아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선착순 150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계자는 “르네상스의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는 오랫동안 소수만의 것이었던 책의 경계를 허물며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며, “이번 전시가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처럼 책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전시 포스터
2. 전시 자료
 - 2-1. 지리학
 - 2-2. 라틴어 문법
 - 2-3. 폴리필로의 꿈
 - 2-4.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가장 경건한 편지
 - 2-5. 베르길리우스 전집
 - 2-6. 단테의 지옥도(신곡)
3. 전시 구성안
4. 이미지 자료(전시 공간)
5. 국외 전시소개 사례(유럽국립도서관장회의)

알도 마누치오, Aldo Manuzio,
세상을 바꾼 The Publisher
위대한 Who Changed
출판인 the World
2025. 10. 28. –
2026. 1. 25.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of Rome

MW
국립세계문자박물관

MINISTERO
DELLA
CULTURA

Biblioteca
nazionale
di Roma

BIBLIOTECA
NAZIONALE
ROMANA

Ministero della
Pubblica Istruzione

Ministero
della
Cultura
국립 이탈리아 문화원

천
서 둘
Festina

천 히
러 라
Lente



지리학, 1482(추정),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대 그리스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작품을 개작한 것으로, 이탈리아 등 새로운 지도 4점이 추가되어 당시 유럽의 지리 인식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줌. 알도 마누치오가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자료



라틴어 문법, 1493, 국립마르차나도서관 소장
알도 마누치오가 집필한 『라틴어 문법』의 초판본이자 세계 유일본으로, 알도 마누치오가 이 책의 개정판을 준비하며 직접 남긴 수정기록이 있는 중요 자료



폴리필로의 꿈, 1499,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르네상스 시대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고전적인 로마체 활자와 170여 점에 달하는 아름다운 목판 삽화의 조화가 높이 평가됨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가장 경건한 편지, 1500,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세계 최초로 이탤릭체(기울임체)가 적용된 책으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탤릭체의 가장 초기적 형태를 볼 수 있는 희귀본



베르길리우스 전집, 1501, 국립마르차나도서관 소장
'알도 마누치오가 최초로 전면 이탤릭체와 8절판형을 도입한 인쇄본으로, 책의 판형이 대형 판형에서 휴대 가능한 8절판형으로 바뀌며 지식의 대중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단테 지옥도(신곡), 1515,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단테의 『신곡』 개정판으로, 지옥의 구조를 세밀히 묘사한 대형 목판화, 지옥의 마지막 세 원에서 처벌받는 죄악의 개요도, 연옥의 단계도가 포함된 흥미로운 자료

- 전 시 명: 천천히 서둘러라: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
- 전시기간: 2025년 10월 28일(화) ~ 2026년 1월 25일(일) / 90일간
- 전시장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전시실
- 전시내용: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2024~25)' 일환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Aldo Manuzio)'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고, 그의 혁신이 이끈 책의 변화와 현대 독서 문화에 끼친 영향을 조명
*이탈리아 로마국립중앙도서관, 국립마르차나도서관과 협력 전시

구분	주제	내용
[프롤로그] 세계의 진정한 혁명, 책의 탄생		
		○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식 매체 중 하나이다. 문자가 생겨나자, 사람들은 생각과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기록이 모여 '책'이 되었다. 오랜 세월, 책은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에 도입된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종이와 물이 있었고, 인쇄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알도 마누치오*가 있었다. *알도 마누치오(Aldo Manuzio)는 알두스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라는 라틴어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이 전시에서는 이탈리아어 이름인 알도 마누치오로 표기합니다.
[1부] 르네상스의 물길을 열다		
		○ 알도 마누치오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과 그의 주변인들을 소개 - 르네상스는 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인간을 새롭게 바라본 시대의 전환기였다. 사람들은 세상을 탐구하며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켰고,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헌을 연구했다. 이 무렵, 이탈리아 바시아노 출신의 알도 마누치오는 인문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출판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 전시품: 『지리학 <i>Geographia</i>』(1482 추정), 『라틴어 문법 <i>Aldi Manucii Bassianatis Romani Institutiones grammaticae</i>』(1493), 『격언집 <i>Adagia</i>』(1508) 등
[2부] 알도 마누치오, 인쇄 혁신을 이끌다		

- 현대 출판의 문을 열었던 알도 마누치오의 혁신과 그의 영향(책의 대중화)를 소개
 - 알도 마누치오는 베네치아 '알디네(Aldine) 인쇄소'를 세우고 출판의 혁신을 이끌었다. 당시 베네치아는 풍부한 자본을 보유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 알도는 읽기 편하고 종이가 절약되는 이탤릭체를 개발하고, 세미콜론과 아포스트로피 등 문장 부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 손에 들어오는 옥타보(octavo, 8절판) 판형을 도입해 누구나 손쉽게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개인 독서 문화를 만들었다.
- ▶ 전시품: 『폴리필로의 꿈 *Hypnerotomachia Poliphili*』(1499),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가장 경건한 편지 *Epistole deuotissime de sancta Catharina da Siena*』(1500),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De rerum natura*』(1500), 『풍요의 뿔, 혹은 라틴어 주석서 *Cornucopiae, siue linguae latinae commentarii...*』(1499) 등

[3부] 알디네 Aldine를 남기다

- 알디네 인쇄소의 영향력과 후손을 통해 이어진 마누치오 출판 가문의 인쇄·출판 유산 소개
 - 알도 마누치오의 혁신은 출판 문화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 그가 출판한 책은 큰 인기를 얻었고, 유럽 곳곳에서 무단 복제된 위조판이 발견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1515년 알도 마누치오는 세상을 떠났지만, 인쇄소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장인 안드레아 토레사노(Andrea Torresano)가, 다음에는 아들 파올로(Paolo Manuzio), 손자 알도 2세(Aldo Manuzio il giovane)가 뒤를 이었다. 아들과 손자는 로마시 인쇄소와 바티칸 인쇄소에서도 활동하며 명성을 이어갔다. 비록 알도 2세를 끝으로 인쇄소는 문을 닫았지만, 알디네 인쇄소가 남긴 책들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책의 역사에서 여전히 빛이 난다.
- ▶ 전시품: 『마르티알리스 시집 *Martialis*』(1501), 『마르티알리스 시집-리옹 지역 위조판 *Martialis*』(1502 추정), 『궁정론 *Il libro del cortegiano*』(1528),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문답서 *The Catechism of the Council of Trent*, edited and published by Paolo Manuzio by order of Pope Pius V (first edition)』(1566), 『불가타 성경 *Biblia sacra vulgatae*』(1593)

[에필로그] 책, 새로운 시대를 꿈꾸다

- 디지털 기술의 시대 도래로 다양한 책의 갈림길에서 책의 미래를 질문
 -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적 유산이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핵심 매체이다. 알도 마누치오는 출판을 통해 세상을 바꾼 혁신가였다. 그리고 그는 지식을 소수의 것에서 모두의 것으로 바꾸었다. 오늘날 책은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디지털에서 모바일로 새로운 독서 방식을 열고 있다.
- ▶ 전시품: 한국 출판사 23개와 협업하여 북큐레이션, 한 줄 감상평, 전자책, 오디오북 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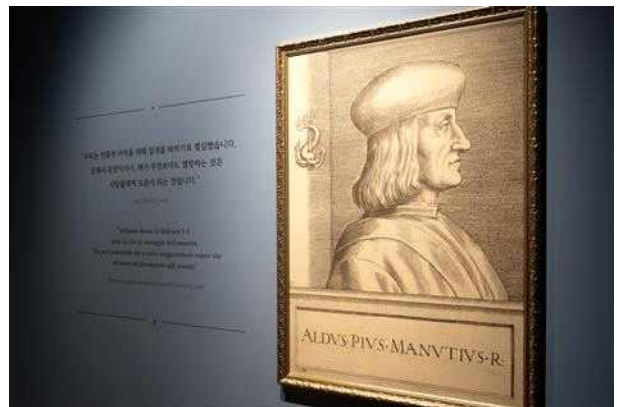
[사진1] 1부-르네상스의 물길을 열다



[사진2] 2부-알도 마누치오, 인쇄 혁신을 이끈다



[사진3] 3부-알디네 Aldine를 남기다



[사진4] 알도 마누치오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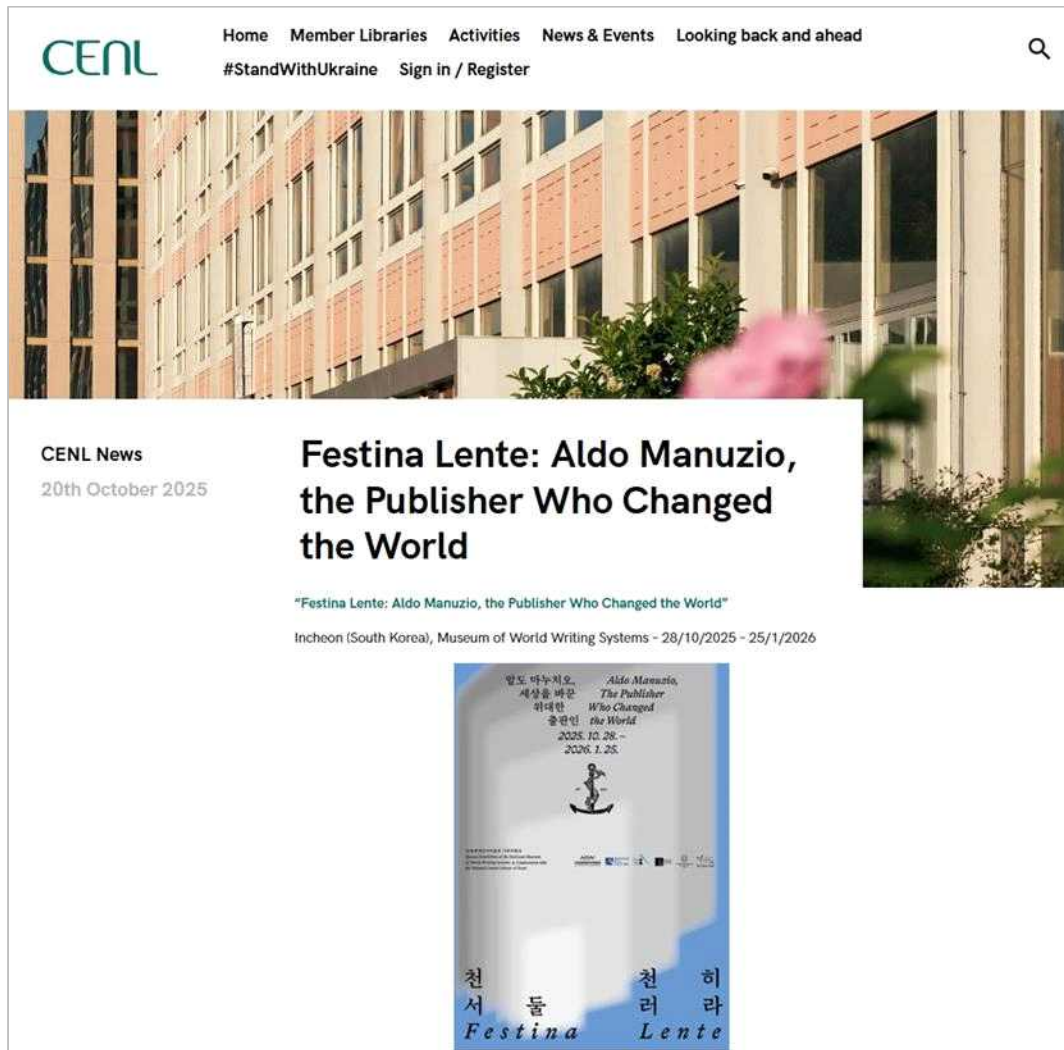


[사진5] 출판사 체험 코너(1)



[사진6] 출판사 체험 코너(2)

CENL(Conference of European National Librarians, 유럽국립도서관장회의) 소개 이미지



[출처] Conference of European National Librarians (CENL) 공식 웹사이트,

"Festina Lente – Aldo Manuzio: The Publisher Who Changed the World",

<https://www.cenl.org/festina-lente-aldo-manuzio-the-publisher-who-changed-the-world/>

(접속일: 2025.10.23. 기준)

전시 소개가 게재된 CENL(Conference of European National Librarians)은 유럽 각국의 국립도서관을 대표하는 기관장들의 협의체이자 유럽의 국립도서관 네트워크 공식 웹사이트로, 회원 도서관의 주요 소식을 소개하는 플랫폼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높은 신뢰와 영향력을 지닌 기관으로, CENL에 전시가 소개된다는 것은 해당 전시가 유럽 문화기관 네트워크 내에서 주목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 홍보를 넘어, 한국 문화 콘텐츠의 국제적 위상과 교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원본

Festina Lente: Aldo Manuzio, the Publisher Who Changed the World

"Festina Lente: Aldo Manuzio, the Publisher Who Changed the World"

Incheon (South Korea),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 28/10/2025 – 25/1/2026

A major international exhibition celebrates Aldo Manuzio's publishing genius and his ability to revolutionise the art of typography, less than fifty years after its invention.

As part of its projects to promote Italian culture abroad,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in Rome has been involved in designing and organising an exhibition dedicated to the great humanist and publisher, which will be hosted at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MoW) in Incheon (South Korea) and will open on 28 October 2025. This prestigious institution launched the idea for the exhibition and invited the National Library of Rome to collaborate.

The MoW's mission is to collect, preserve and exhibit the different types of writing adopted by humanity over the centuries in order to "explore the value of the world's writing systems that have shaped human civilisation". In this cultural context, which hosts a permanent exhibition on almost sixty written language systems and shows a strong interest in European printing techniques and one of the most flourishing historical periods of our country, the idea matured to set up an exhibition that reconstructs the work of Aldo Manuzio, unanimously recognised as the absolute protagonist of the history of books and Humanism.

Thanks to the loan of precious printed copies preserved at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in Rome and the Marciana National Library in Venice, it will be possible to retrace the publishing adventure of the Manuzio family (from Aldo to his son Paolo, to his grandson Aldo the Younger), the first dynasty of publishers, in a journey spanning almost a century: from the first editions published in Venice by Aldo the Elder in the 1490s to the last prints of the late 16th century published in Rome by Aldo the Younger, also passing through Paolo's experience in the Stamperia del Popolo Romano.

Among the most representative works on display, visitors will be able to admire the *Institutiones grammaticae* of 1493, the only copy in the world of Aldo Manuzio's Latin grammar, incomplete but enriched with autograph corrections; the *Hypnerotomachia Poliphili* (1499), considered the most beautiful illustrated book of the Renaissance; the *Epistole di Santa Caterina* (1500), in which cursive script appears for the first time; the so-called *Virgilio aldino* (1501), the first book printed entirely in cursive and in pocket format; and other fundamental editions of Greek and Latin classics, works by Dante, Petrarch, Bembo, Castiglione, Lorenzo de' Medici and many others.

Precious and richly decorated atlases of the time, illustrated incunabula, contemporary views of Rome and Venice, and extraordinary engravings complete the exhibition and contextualise the era of Aldo.

In the name of Aldo, Humanism and the Renaissance, and a shared love of books, a new bridge between East and West is being built, with the aim of expand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Italy and South Korea.

Link to the Incheon Museum website with the exhibition programme:

https://mow.or.kr/prog/specIDspy/01/eng/sub02_02_02/view.do

번역본

천천히 서둘러라 : 세상을 바꾼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

"천천히 서둘러라 : 세상을 바꾼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

국립세계문자박물관(대한민국 인천) - 2025/10/28 - 2026/1/25

인쇄술이 발명된 지 불과 반세기 만에 출판과 활자 예술의 혁신을 이끌어낸 알도 마누치오의 천재성과 비전을 조명하는 국제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 전시는 이탈리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위대한 인문주의자이자 출판인인 알도 마누치오(Aldo Manuzio)를 주제로 한다. 전시는 대한민국 인천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MoW)에서 2025년 10월 28일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로마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시의 디자인과 구성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특히 약 60여 종의 문자 체계를 다루는 상설 전시를 운영 중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유럽 인쇄술과 이탈리아의 찬란한 역사적 시기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은 인문주의자이자 출판 역사의 흐름을 주도한 알도 마누치오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본 전시가 기획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로마 국립중앙도서관과 베네치아의 국립마르차나도서관이 소장한 귀중한 인쇄본을 대여한 덕분에, 관람객들은 마누치오 가문의 한 세기에 걸친 출판 여정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이들은 역사상 최초의 출판업 가문으로, 이들의 여정은 1490년대 베네치아에서 알도 마누치오가 출판한 초판에서 시작해, 16세기 말 로마에서 손자 알도 주니어가 발행한 마지막 인쇄물로 이어진다.

전시 작품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대표작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적들이 있다.

- 『라틴어 문법』(1493) : 세계에서 단 한 권만 존재하는 알도 마누치오의 라틴어 문법서로, 완본은 아니지만 저자의 자필 수정이 포함된 유일본이다.
- 『폴리필로의 꿈』(1499) : 르네상스 시대 가장 아름다운 삽화서로 평가받는 걸작이다.
-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가장 경건한 편지』(1500) : 필기체 활자가 최초로 등장한 서적이다.
- 『베르길리우스 전집』(1501) : 세계 최초로 전체를 필기체 활자로 인쇄하고,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판형으로 제작된 책이다.

이 밖에도 그리스어·라틴어 고전의 주요 판본과 더불어 단테, 페트라르카, 뱌보, 카스틸리오네, 로렌초 데 메디치 등 인문주의 시대의 대표 작가들의 저작이 함께 전시된다.

당시의 귀중하고 화려한 장식의 지도집, 삽화가 포함된 초기 인쇄본, 동시대 로마와 베네치아의 풍경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동판화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알도 마누치오가 살던 시대의 분위기와 문화를 한층 생생하게 보여준다.

알도 마누치오, 인문주의, 르네상스,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동서양의 만남 아래,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을 잇는 새로운 문화의 다리를 놓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더욱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바로가기:

https://mow.or.kr/prog/specIDspy/01/eng/sub02_02_02/view.do